

“정치명운 가른다”...광주·전남 중진들 지도부 도전 러시

내년 초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지도부 도전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지도부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진들만 4명에 이른다.

전남의 박지원 의원과 광주의 박주선, 김동철, 강기정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전남 동부권의 주승용 의원과 우윤근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중진의원들의 이름이 집중 거론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서 3선을 하면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진입 등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차기 총선에서 물갈이 태풍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중진 의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별다른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도전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중진 의원들이 내년 전대를 앞두고 20대 총선 불출마와 수도권 진출 등을 선언하며 정치적 올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주목되고 있다. 지도부 도전의 진정성을 보이고 전국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총계 요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내 관계자는 “현재 당내에서 확고한 세를 이루거나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광주·전남지역 중진 의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대 출마의 진정성과 인지도를 높

박지원·박주선·김동철·강기정

내년초 전대 새정치 당권 노려

주승용·우윤근은 원내대표 거론

여 승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도부 도전은 지역 중진의원들에게 ‘양날의 칼’이 될 전망이다.

지도부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하는 등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4선 도전에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대 출마설을 흘려놓고 은근슬쩍 발을 빼는 중진들도 없지 않을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지도부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당대회를 지렛대 삼아 유력한 당권 주자와 연대, 차기 총선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전대에서 지도부 경선에 나설 지역 국회의원들은 1~2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중진들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전대에 도전하는 중진은 많아야 2명 내외에 불과할 것”이라며 “전대에 출마하지 않는 중진들은 당내 상황을 보며 정치적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왼쪽부터 강기정,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우윤근 의원.



28일 오후 충남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당원 토론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12년만의 ‘호남 당권’ 지역 정치력 시험대

출마 경쟁팬 또 사분오열...당권·최고위원 ‘선택과 집중’ 필요

내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중진 의원들의 지도부 도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권 확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경선을 통해 제1야당이나 여당의 대표가 된 것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 이후 단 한명도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상천 전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야권의 재편 과정에서 공동대표를 하기도 했지만 이는 경선이 아닌 통합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적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지역 민심도 당권에 대한 갈증이 상당한 상황이다.

현재 거론되는 지역 중진 중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당권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다 광주·전남 지역 대표성과 구민주계의 정통성도 평가받고 있다. 박기춘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과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그의 정치적 경륜을 인정하고 있고 높은 인지도 등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과 강기정 의원도 지도부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경선을 통해 최고위원에 선출된 바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김동철 의원도 계파를 넘나드는 정치력과 개혁성을 갖춰 디카호스로 꼽히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하지만 현재의 당내 역학 구도를 고려하면 지역 중진들의 당권 장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내 최대 주주가 친노(친 노무현) 진영인데 그동안 호남 정치권이 사분오열되면서 위상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호남이 최대 당원을 갖고 있지만 전대 경선 물이 당원 중심으로 만들어질지도 미지수다. 당내에서는 당원이 중심이 아닌 시민 참여가 중심이 되는 모바일 투표 등의 경선 물이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중진들의 출마 러시가 이뤄질 경우, 호남표의 분산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당권과 최고위원 후보를 각기 정하고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출신의 뚜렷한 대권 주자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 중진들이 지도부에 진입, 호남 정치권의 재도약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공천을 위해 당권을 노리는 계파 수정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모습도 이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파주의가 호남 정치권의 분열과 역량 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과 전당대회 등 당내 현안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안락한 제주여행의 시작은

SEA WORLD LINE!

저희 승무원 일동은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전천후 초호화 크루즈 선박
씨스타크루즈호

국제 통수 24,000톤급
여객 정원 1,935명
차량(승용) 500대

고객의 마음을 믿고 갑니다 | 고객이 선택한 10년 연속 제주 기점 수송물 1위 항로
다양한 선박과 시간대! 어디에서나 편리한 접근성!

프리미엄급 초고속 카메라
해남 우수영 로얄스타호 제주

국내 최대·최고 초호화 크루즈여객선
목포 씨스타크루즈호 제주

섬 속의 섬, 추자도를 경유하는
목포 배박 핑크돌핀호 추자 제주

씨월드고속훼리(주) 대표전화 1577-3567 씨월드고속훼리 검색

제주해상관광문화를 선도하는 씨월드고속훼리 베스트 파트너 제휴 여행대리점 및 물류업체 제공

전국 하반기 재보선 기초선거 2곳뿐

여야 선거부담 없이 혁신 경쟁...민심 역주행 부작용도

다음달 29일 열리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달랑 2곳에서 기초의원을 뽑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6·4 지방선거 두 달 만에 국회의원 15석이 걸린 ‘미니 총선’ 격의 7·30 재·보선이 연달아 치러져 선거에 매달려야 했던 여야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를 맞은 것이다.

2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0·29 재·보선 실시 지역은 현재까지 경상북도 청송군 나선거구, 경상북도 예천군 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선거구 2곳이 전부다.

이를 뒤인 30일까지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돼야 하반기 재보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10·29 재보선은 기초선거 두 곳에서만 열리는 게 유력시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현재 새누리당 정두언 안덕수 조현룡 의원 등 3명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지만, 정 의원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두 명은 재판 일정에 따라 내년 4월 재보선 포함 여부가 정해진다.

다만 내년 4월 1일 이후에 의원직 상실 판결이 내려지면 내년 하반기 재보선 대상이 되지만 이 때가 되면 국회의원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게 돼 재보선

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당분간 사실상의 ‘무(無)선거 시즌’이 도래하자 선거 부담을 덜게 된 정치권은 그간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거나 미뤄왔던 일을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당 내부 체제 정비에 나서는 한편 다음 총·대선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앞다투어 ‘혁신 경쟁’을 벌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권이 ‘무더기 표’를 잃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공기업개혁을 추진하고 정부가 주민세·자동차세·담뱃세 등 세금 인상안을 들고나온 것도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선거가 없는 탓에 정치권이 민심에 ‘역주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정쟁만 일삼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의 문제로 여야 대치가 무려 다섯달 가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서로 타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던 정치권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도 역주행의 사례도 거론된다. /연합뉴스